

## 뉴스속뉴스

### 나누는 기쁨... 따뜻한 설

1월 18일 서울 미아동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한 사람이 쌀 한가마니를 탁자에 올려놓자마자 자리를 뜬다. 자비의집 직원들이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 말이 없다. 2년째 매달 쌀을 놓고 가지만 불교용품을 운영하는 불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도 누르지 모른다.

머칠 뒤, 이번엔 노보살 한 명이 꼬깃꼬깃 집은 지폐 5천원을 슬그머니 자비의 집 직원 손에 쥐어준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는 것이었다. 작지만 자비심 가득한 이런 정성은 올 설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돈 몇 푼 놓고 가는 게 대단한 일이다"며 한사코 자신을 밝히길 꺼려한다.

설을 맞아 1월 28일 자비의 집은 오전 원, 만원씩 모은 후원금과 1~2kg씩 들어온 쌀로 100가구 150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식노인들에게 쌀 일곱 가마니 분량의 떡을 나눠주었다. 모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것이다. 오랜만에 시름겨운 이웃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월남한 이후 혼자 몸으로 살아온 김명성 할머니는 자비의 집에서 보내준 떡국 떡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김 할머니는 "이번 설에는 떡국도 못 먹었다고 생각했어. 명절만 되면 고향에 두고 온 식구가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 있어 위로가 되는 것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자비의집 신석훈 간사는 "자비의 집이 여러 어려신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 돌려주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한다"고 말한다.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

강유신(취재1부 기자)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원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 총무원 운영·원장 권한 변화 예고

###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종하·법장스님 정책 기조

#### 총무행정 각부장에 고유권한 부여

	종하 스님	법장 스님
총무원장 역할	대청부 관계 및 국제종교교류에 중점	분야별 전문진단과 역할 분담
총무원 운영방식	부장에 전권권 부여 조직구조 개편	부장에 권한 이양 일상사무지 임명권 봉사주지에 이양
인사 원칙	공정·투명·객관성	능력
탈리아리파 방한	신중히 고려	찬성
남북 불교교류	참구 담화(민중생, 평불협 중)	평불협이 주도, 총무원은 후원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반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종하, 법장 두 스님이 총무원 운영과 총무원장 권한의 변화를 예고했다.

두 스님은 1월28일 불교계 기자회견 가진 개별 인터뷰에서 총무원장의 권한을 총무원 각 부처에 이양하고 조직 및 인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종하 스님은 해외교구 설치 및 해외 사찰 건립 등 국제교류에 비중을 둔

반면, 법장스님은 대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의 현안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견해를 보여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도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관련 인터뷰 및 기사 3편  
먼저 총무원 운영방식과 관련해 종하, 법장 두 스님은 한결같이 총무원 각 부처에 고유권한을 갖고 효율적인 총무행정을 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종하스님은 총무원 조직개편을, 법장스님은 말사 주지 임명권을 봉사주지에게 이양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무원장의 역할에 대해 종하스님은 대정부 관계 및 세계 종교와의 교류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법장스님은 통일이나 환경문제를 전문가들이 맡도록 함으로써 전문분야에 직접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 문제에 있어 종하스님은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법장스님은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상대 후보 측의 인물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부산 성역화와 관련 두 후보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으며, 북한산 및 천성산·금강산 관통도에 대해서도 백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면에 대해서는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불교문화 및 정보화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간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 “남북한 불교현안 논의하자”

### 조불련, 10일 베이징서 대화 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남한 불교계에 2월 10~11일 베이징에서 만나 남북불교 현안을 논의하자고 1월 22일 제안했다. 조불련이 대화를 제의해 온 단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진각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 네 곳이다.

조불련은 중앙위원회 심상진 서기장 명의로 발송한 전문을 통해 “올해 남북불교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의 평양관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단협과 조계종, 진각종, 평불협 등 조불련의 접촉 제안 받은 단체들은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 계획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ABCP 10차 총회 21세기 불교발전 모색

아시아불교평화회의(ABCP) 제10차 총회가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주제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아네에서 개최된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제9차 총회 이래 ABCP 본부 및 상임이사회의 사

업과 회원국의 활동 보고, 평화와 화합 정의를 위한 협약을 맺어 아시아 전역을 통해 더 많은 불자와 불자들이 평화구현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남한에서는 조계종 국제교류부위원장 진월스님이, 북한에서는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2년에 결성된 ABCP는 몽고 울란바토르에 본부가 있으며 30여 개 회원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nam@buddhapia.com



업동이 돌보는 노스님

여덟 명의 업동이를 기르고 있는 서울 불광동 수경사 청오스님(94)이 쌍둥이 형제 윤권이(왼쪽)와 윤수(오른쪽), 그리고 윤경이를 안고 있다. 관련기사 7편 사진=고영배 기자

## ‘자원봉사 저축제’ 큰 호응

### 봉사누적 일정점수 이상 땀 인센티브 연꽃마을 등 시행... 복지단체 도입 늘듯

자원봉사자들의 성취고 고취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대표 지도스님은 지난 1999년부터 소속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에게 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자원봉사 저축제'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 저축제'는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에 자원봉사 시간을 기록해 봉사자들이 봉사누적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불교사회복지회 소속 100여 단체의 1천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누적된 자원봉사 실적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108사찰순례단 등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유료 프로그램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용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본인뿐 아니라 추천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어 효용가치가 더욱 크다.

현재 이러한 제도는 '연꽃마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교계 각 복지단체에서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박원규 기자

###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지역포교에 앞장설 참신한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 모집 지역
  - 강원: 춘천, 원주, 동해, 삼척, 정선, 영월
  - 충청: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공주, 부여
  - 경상: 경주, 포항, 김해, 마산, 창원
  - 울산광역시
  - 제주 지역
- 활동분야
  - 지역내 구획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명 및 사진 2매)
- 제출기간: 2003년 2월 15일(토)
- 제출방법: 우편(15일까지 도착본 유효) 또는 봉사 방문 접수
- 제출처
  -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언어배런 마음도, 굳은 얼굴도 금방 한~하게 녹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아이들의 미소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삼백육십오일 늘 행복하십시오. 보다 더 큰 행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객이 행복을 떠나지 마세요. ok! SK